

■ 건강 칼럼

나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

나의 건강, 나의 가족의 건강을 내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건강을 의사나 아내, 남편, 부모, 자식 등의 남의 손에 맡겨 두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저희 Anti-Fragility Health(AFH)의 철학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간의 신체는 엄청난 잠재력과 복구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해로운 독소를 없애 주면 우리의 몸이 알아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가끔 원인도 모르게 두통이 있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변비가 있다든가, 잠을 깊게 못 잔다든가 하는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진통제, 소화제나 변비약을 드시지는 않나요? 이런 약들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뿐 원인을 고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러한 증상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금 드신 음식은 상했어요. 몸 안에서 박테리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라든가 '섬유소가 부족한 음식만 드시니까 대변이 잘 나오지 않아요.' 또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등의 표현입니다. 화학비료나 각종 식품 첨가물 등으로 오염된 음식물의 잦은 섭취로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요소가 우리 몸에서 잘 빠져 나가지 못하고 축적될 때 우리 몸의 세포와 기관들은 자신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몸은 만성적으로 아프게 되고 결국 스스로의 회복 기능을 잃게 됩니다.

B.C. 460~B.C. 370경 고대 그리스의 사, 히포크라테 (Hippocrates)는 이미 이러한 것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말

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의사’ 가 있다. 우리 몸 안의 의사가 하는 일은 그저 몸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다. 우리 몸의 자연적으로 고치는 힘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18세기의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볼테르(Voltaire)는 더욱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말 하였습니다.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치유할 동안 환자를 그저 즐겁게 해주는 것뿐이다.”

즉 우리가 치유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즉 환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적극적으로 건강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건강으로의 길은 머나먼 길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두통이 있다고 진통제를 먹을 것이 아니라 왜 두통이 나는지 그 원인을 알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큰 병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지도 모릅니다. 큰 병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몸에서 키워지는 것입니다.

AFH에서는 환자 중심의 치료 방법을 강조합니다. 환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건강으로의 길을 함께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그리고 활력 있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Dr. Sung Hye Yi
President & COO
Anti-Fragility Health
www.anti-fragilityhealth.com
TEL (714) 864-3730
1020 S. Anaheim Blvd, #101
Anaheim, CA 92805



■ 법률 칼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우리말로는 기업 비밀 혹은 영업 비밀이라고도 하는 Trade Secret은 사업을 운영하며 사용되는 비밀스럽고 독점적인 아이디어를 뜻하는데,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 제조법이나 기술, 공식, 경영방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예전에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라는 문구로 유명해진 한 떡볶이 집에 가서 지인들과 둘러앉아 과연 이집 고추장 맛의 비법을 며느리들이 정말 모를까 궁급해 하며 우스갯소리를 하던 기억이 난다. 이제는 더 이상 일급 비밀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집의 조리법이 한동안 기업 비밀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흔히 기업 비밀이라고 하면 코카콜라의 성분 비율을 떠올리게 된다.

간혹 특정 지적 생산품을 상표등록을 통해 마케팅의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성장 단계에 놓인 사업체 주위에 경쟁사가 많은 경우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신한 레시피로 탄생시킨 신개념의 요리를 ‘XXX’ 라고 트레이드마크 시킬 경우, 타 업체들이 같은 종류의 요리를 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게 되지만, 같은 맛으로는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이 소속되어있는 관할권이 어디인가에 따라 기업 비밀에 대한 정의와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한 개인이나 업체가 영업을 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획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비밀로 유지를 한다는 점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적으로 지식 재산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다만 위에 언급한 상표권을 비롯하여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의 타 지식 재산권들의 경우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반해, 기업 비밀의 경우 공개되는 즉시 그 희소성과 가치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기술이나 지적 생산품의 독점권을 보호받는 방법이 다르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하는 수 없이 기업 비밀로 지식 재산

권을 보호하게 될 때가 있는데, 맛 집의 요리 비법 등이 그렇다. 그러나 특허가 가능한 기술이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 독점권을 점령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위험하더라도 비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독점권의 영속성을 지속할 것인가는 지적 재산 권리자의 선택이다. 만약 실수로 비밀이 유출되거나 혹은 우연히 제 3자가 똑같은 기술이나 지식을 터득하여 사업화 시킬 경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이나 개인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며 타인의 접근을 제한하던 상황에서 영업상 유용한 경영 비밀을 침해당할 경우에는 간혹 민사 또는 형사상의 법률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나 정보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는 제외되며 (예를 들면 마약 제조 기술이 이에 해당 된다), 또한 특정 비밀이 침해자에게도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영업 비밀 보호 혹은 부정 경쟁 방지 등의 법적 구제 수단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기업 내에서도 영업 비밀의 공개 여부가 계급이나 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극비 사항의 경우 직원들마저도 존재 사실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기업 비밀 보유자들은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비밀 상태를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 서류를 통해 비밀 누설 사원을 징계처리 하도록 정해놓는 다거나 비밀 유지 계약서를 통하여 비밀 유지 준수에 대한 각서를 받아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호 조치를 취해놓는 방법 등이 활용된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동업자와 새로운 벤처를 앞둔 고객들이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자를 찾는 사례가 많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
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info@jlbridge.com
www.jlbridge.com
(949) 535-5275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전문업체



하시마 건축

HASHIMA CONSTRUCTION INC

물, 화재, 천재지변 보험 크레임 및 수리, 리모델링 일체 통합 서비스

Terry Joe (Mr. 조) 714.745.5958